

## 특 집

본 권도에 접어든 양돈자조금제도

# 양돈자조금의 역사적 의의

**면** 저 한국에서 맨 처음으로 양돈산업이 의무자조금제도에 진입한 것을 축하하며, 그동안 이를 위해 애써 오신 많은 분들께 찬사를 보낸다. 필자도 이 고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늘날을 학수고대 해 온 터라 기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겪어야 할 험한 노정을 생각하면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걱정도 없지 않다.

자조금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우리의 오랜 타성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하나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조금제도가 바야흐로 시작된다고 해서 양돈산업의 현안문제(질병, 수급, 가격, 수출 등)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 믿어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 그런 묘약도 있던가, 자조금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어쨌든, 20년 치성의 결과로 10여년의 산고 끝에 태어난 의무자조금인 만큼 우리는 잘 키워 제구실을 다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 그 제도가 필요한지는 이제 잘 알고 있다.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이다. 그 역사적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

## 1. 양돈산업의 민주화실현

양돈산업(養豚産業, hog industry)이란 글자 그대로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업종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농장돼지를 공장에서도 축, 가공하고 시장에서 유통시켜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잘 먹게 하는 돈육산업(豚肉産業, pork industry), 즉 삼장통합산업(三場統合産業)의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돼지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도 잘 다루어야 하는 고도 산업의 위치에 놓인 것이다.



박 영 인 고문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



자조금제도는 농업 민주주의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

양돈인에 의한(발의설치), 양돈인을 위한(지구방편), 양돈인의(관리주체) 자조금제도가 말로 농업부문 풀뿌리 민주주의(grass roots democracy)의 정형이라 할 수 있다. 제 돈을, 저를 위하여, 제가 쓰는 것이 바로 자조금이다. 참민주화를 달성하는 길이다.

양돈산업과 마찬가지로 돈육산업도 그 주인은 당연히 농민이어야 한다. 양돈농민은 어느 경우이든 돼지·돼지고기를 떠날 수 없으나, 양돈관련 도축, 가공, 유통, 요식업자들은 돼지가 아닌 다른 품목을 취급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돈인은 돈육산업의 최초이자 최후의 수호자인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우리의 정치 민주주의는 이제 그런대로 자리를 잡았고, 경제 민주주의도 2, 3차 산업은 제법 그 기틀을 다져간다. 그러나 1차산업인 농업 민주화는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주도하고 그 주인인 농민은 피동적 수혜자의 입지를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자조금제도는 농업 민주주의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 양돈인에 의한(발의설치), 양돈인을 위한(지구방편), 양돈인의(관리주체) 자조금제도가 말로 농업부문 풀뿌리 민주주

의(grass roots democracy)의 정형이라 할 수 있다. 제 돈을, 저를 위하여, 제가 쓰는 것이 바로 자조금이다. 참민주화를 달성하는 길이다. 한국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바람이다.

## 2. 공통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우리는 일생동안 여러 형태의 금전을 부담(납입)하면서 살아간다. 의무적인 것은 국민의 세금(정치적 부담)이고, 자의적인 것은 각종 기부와 헌금(도의적 부담)이다. 그 중간에 기부보다 강한 친목회비(사회적 부담)와 세금보다 약한 특정 목적의 자조금(경제적 부담)도 내게 된다. 그래서 국가와 산업을 지키고 우호와 자선을 실현시켜 나간다. 모두가 공통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소산이다.

양돈산업·돈육산업의 생

산, 유통, 소비에는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어떤 것은 개인적인 과제이나 대부분은 공통적인 사안들이다. 그 가운데 수요와 공급, 가격과 소득, 질병과 안전성 등 국민과 관계가 있는 커다란 문제는 국가의 정책으로 정부 예산이 충당하게 된다. 그밖에 돈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비확대, 산업의 장단기 발전, 적절한 정책개발 등은 양돈인의 자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돈자조금은 양돈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자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덜 된 때문인지 아직도 이런 논설을 가끔 본다. 자조금은 수급·가격안정과 같은 정부의 일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양돈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조금의 규모를 보라. 정부가 100% 지원한다 해도 겨우 100억 정도의 예산이다.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하여 교육으로 끝난다는 옛말이 있다. 자조금도 이것에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공감대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3. 산업과 정부의 합작사업

한국농업은 그동안 산업 이전의 단계에서 해매이다가 이제야 겨우 산업의 면모를 갖춰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산과 원예는 단연 앞장서고, 그 가운데 양돈부문은 질, 양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근래에 자조금에서도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제 산업을 제가 지켜가려는 농민 스스로의 당연한 주인

찾기 활동이다.

자조금제도는 산업단계 이전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정책을 지원, 보완하는 것이고, 산업단계 이후의 견지에서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산업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민주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일을 산업이, 산업의 일을 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바로 정부와 산업, 산업과 정부간의 합작사업인 것이다.

양돈농민은 돈 모으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무임편승자까지 있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듯이 모든 양돈인도 반드시 자조금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법제화·의무화 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격려·고무·지원하면서 그 돈이 잘 쓰여지는지 감독

하기에 이른다. 가히 민주주의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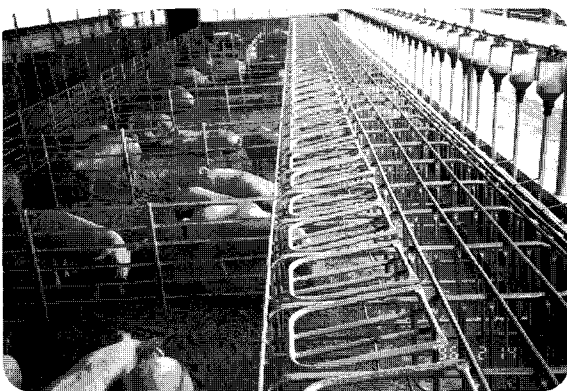
앞으로 이 합작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총 예산의 규모를 키울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규모도 대폭 증가시키는 과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은 산업과 정부의 상호의존 체제이면서 WTO체제에도 안성맞춤이다.

### 4. 양돈단체를 초월한 양돈인사업

양돈·돈육자조금은 지난해 양돈협회와 농협간의 불필요한 갈등현상을 경험했고, 아직도 완전 해소된 상태가 아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한국적 현실로 법적인 절차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 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일반론만을 다시 강조해 본다.

자조금제도는 양돈인의 자조사업이다. 어떤 일부 단체의 일이 아니다. 기존 단체 각각의 사업은 더욱 아니다. 오직 전국 양돈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조직이 관할해야 한다. 일부 양돈인이 회원인 양돈협회나 경제사업을 필요로 하는 양돈 농민만이 조합원인 농협은 모두 자조금의 대표조직이 아니다. 자조금의 조직과 사업은 이 두 단체를 초월한 자조금을 부담하는 전국 양돈인의 대표성을 전제로 해



● 양돈산업은 돼지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도축, 가공하고 시장에서 유통시켜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잘 먹게 하는 돈육산업(豚肉産業, pork industry), 즉 삼장통합산업(三場統合産業)의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양돈인은 돈육산업의 최초이자 최후의 수호자인 것이다.



한국형 돈육자조금은 산업의 바람직한 장래를 설계하는데 잘 쓰여져야 한다. 전국 양돈인대표가 모여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다. 의미가 있는 자조금사업이라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은 많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옳은 일인 줄 알면 추진해 가야 한다. 양돈인이 비전을 갖고 민주화사업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

야 한다.

양돈협회는 오랫동안 걸쳐 자조금의 오늘이 있게 한 공로단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임의자조금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또 농협은 전국 최대의 농민 단체로 자조금에 방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통례로 보아, 모든 품목의 자조금을 농협이 맡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논리도 나올만 하다. 그러나 두 조직은 자조금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양돈협회 회원, 농협 조합원, 또는 양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을 막론하고 양돈인이면 모두 참여 하는 것이 자조금사업이다. 그 형성과정에 기존조직을 개입시킨 것(공동준비위)은 잘못이다. 처음부터 양돈인 대표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절차로 고치면 된다.

## 5. 산업발전의 비전 제시

돈육자조금의 역사적의미는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돈육산업의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다는데 있다. 제 산업의 앞날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화 속의 경쟁, 다른 육류와의 경쟁, 자원 활용상의 경쟁, 정책상의 경쟁 등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생존,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을 자조금으로부터 찾아 해쳐나갈 수 있다.

자조금은 우선 양돈인들끼리 뭉치게 하는 힘의 근간이 된다. 제 돈을 내놓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유규모가 크면 연간 수백만원, 웬만해도 수십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조금이다. 그 돈을 어디에 누가 쓰는지 관심이 안갈 수가 없다. 본래적인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정부도 후견인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돈육관련 입법, 학술, 연구, 언론 부문 역시 그 추진과정과 기여도에 애정과 채찍을 보낼 것이다.

한국형 돈육자조금은 산업의 바람직한 장래를 설계하는데 잘 쓰여져야 한다. 전국 양돈인대표가 모여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다. 시대에 맞게 법규나 제도를 고치고, 각종 정책 형성에 앞장서며, 관련 부문의 지원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돈육산업의 앞날은 밝아질 수 있다.

의미가 있는 자조금사업이라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은 많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옳은 일인 줄 알면 추진해 가야 한다. 양돈인이 비전을 갖고 민주화사업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 **양돈**